

서울우유, 17대 조합장에 조흥원 후보 당선

서울우유 17대 조합장에 조흥원 후보(64세)가 당선됐다.

서울우유는 지난달 17일 관내 21개 투표구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체 조합원 2,398명의 선거인 중 2,289명이 참가하여 95.5%의 투표율을 보인 결과 기호1번 조흥원후보 1,196표 기호2번 김재술 후보 1,089표 무효표 4표가 나온 결과 107표를 앞선 조흥원 후보가 서울우유 제17대 조합장에 당선됐다.

조흥원 조합장당선자는 당선소감을 통해 "조합원들이 본인을 조합장으로 선택해준 가장 큰 이유는 오는 7월 11일 조합창립 70주년을 계기로 조합이 한 차원 높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는 것"이라며 "앞으로 2011년까지 재임기간 동안 조합원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합발전과 조합원 권익보호를 위해 열과 성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우유 조합장 선거는 4년마다 이루어지며 서울우유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만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으며, 선거인 또한 서울우유 조합원으로 국한된다.

당선된 조흥원씨의 임기는 오는 5월 5일부터 2011년 5월 4일까지이다.

톱밥 왕겨 대신 '수입 옥수수대 펠릿'

수입 옥수수대 펠릿을 축사바닥깔개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농림부는 최근 농축산물시장접근물량을 증량, 8만 4000톤의 옥수수대 펠릿을 축사바닥깔개용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옥수수대 펠릿은 옥수수를 수확한 후 옥수수대를 분쇄해 압착시켜 만든 것이다.

지금까지 축사바닥깔개용으로 옥수수대 펠릿을 수입할 경우 46.6%의 고율관세를 적용받았으나 올해부터 시장접근물량 8만4000톤 범위내에서 수입할 경우 5%의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축사바닥깔개는 주로 톱밥이나 왕겨를 사용해 왔으나 가격이 높고 구입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축발기금 확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건전경마추진위원회(위원장 박의규)는 지난달 16일 성명서를 내고 축발기금 확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위원회는 "한국마사회에서 발생하는 재원은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도록 사용돼야 한다"며 "축발기금 조성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마사회 출연금이 지난 2002년에는 1834억원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약 685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어 지방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어 "지방세법 개정으로 레저세율을 인하는 이유는 농업회생 및 기반안정을 위한 재원 마련이 절실한 상황에서 마사회 설립목적에 맞도록 경마에서 발생된 재원을 농축산업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지방세법 개정으로 농업회생의 의지를 보여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미 FTA 농축산업 피해 연1조362억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농축산부문의 연간 생산 감소액이 무려 1조원 3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번 협상으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한우의 경우 관세가 철폐되는 15년차에 연간 3147억원의 생산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한·미 FTA에 의한 주요 품목별 농업생산액 변화(종합)' 자료에 따르면 연간 생산액 감소액을 5년 단위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2005년 생산액을 기준으로 한·미 FTA 5년차에는

4464억원, 10년차에 8958억원, 거의 모든 품목의 관세가 없어지는 15년차에는 1조 362억원의 생산액

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액이 가장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축산으로 한우가 3147억원, 낙농이 594억원, 양돈이 1874억원, 육계가 996억원, 양봉이 31억원, 기타가축이 155억원 등 무려 6797억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수의 경우는 사과가 778억원, 배가 325억원, 포도 764억원, 감귤 658억원, 복숭아 197억원, 기타과수 65억원 등 총 2787억원의 피해가 예상됐다. 채소 및 특작은 마늘이 49억원, 양파 96억원, 고추 72억원, 과채류 240억원, 인삼 43억원, 기타채소 38억원 등 총 538억원이다. 곡물은 맥류가 32억원, 두류 154억원, 기타곡물 53억원 등 24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영향분석은 한·미 FTA가 2009년부터 발효된다고 전제했으며 이행완료 이후에는 최종년도 감소액이 지속된다고 가정했다.

사료값 재인상 시기 '고심'

사료값 재인상시기를 놓고 업체들이 고심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연일 국제 곡물가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원가 부담이 가중되면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조만간 사료값을 인상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국제 옥수수가격은 톤당 215~230달러에 이르는 등 고단가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당기간 이같은 고단가는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원료가 인상 수준을 감안할 때 국내 사료값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최근 한·미 FTA 등으로 농가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과 불안감 등이 팽배한 상태라 여기에 사료 값마저 인상할 경우 농가 반발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사료값은 지난 연말과 올 2월에 걸쳐 약 11~12%가량 인상된 상태이며 이번에 인상되면 세 번 째 인상되는 것이다.

업체들은 인상시기를 늦출수록 업계 채산성은 더

낮아질 것이며 경영 악화로 이어질 경우 결국 사료 품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가격 인상 시기를 더 미루기 어려울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육우 의무자조금 대의원수 80명

농림부는 지난달 13일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지난해 관련법률 개정으로 육우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대의원 총수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관련 제명도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이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했다.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육우자조금 대의원 총수는 80명이다. 농림부는 시행령을 통해 육우뿐 아니라 다른 축종의 대의원수도 조정, 젓소는 150명에서 130명, 돼지는 200명에서 150명, 육계·산란계는 150명에서 각각 80명으로 하향조정했다.

남양·매일유업 불공정거래 과징금 228억 부과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전국 143개 산부인과에 자사 분유제품 독점공급을 전제로 장기저리대여금을 지원해 온 것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11일 전원회의에서 이들 2개사가 산부인과와의 제품공급계약시 장기대여금 제공명목으로 자사 제품 독점공급이나 경쟁사와의 거래를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남양유업 1억2천만원, 매일유업 1억800만원 등 총 2억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17일 밝혔다.

이들 2개사는 1997년부터 2006년 8월까지 전국 143개 산부인과병원을 대상으로 평균 3.32%의 금리로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은 각각 85개 병원과 58개 병원에 338억원과 278억원을 각각 지원했다.

●● 농축산소식

이 과정에서 이들 2개사는 산부인과병원 제품 납품가액이 평균 시중금리와 제공금리의 차액보다 작은 출혈마저도 감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신생아의 절반가량이 병원에서 수유한 분유제품을 교체하지 않고 먹는 특성을 교묘히 이용한 것이다.

이같은 분유사와의 불공정한 관행으로 산부인과병원이 산모나 신생아들에게는 모유수유를 권장하지 않는 것은 물론 특정업체의 분유선택을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등 폐해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서울유우 홀스타인 품평회 개최

서울유우협동조합 홀스타인 품평회가 지난달 26일 농협 안성연수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품평회에는 지난해보다 40여마리가 늘어 총 234마리가 참여해 심사를 받았다. 마릿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행사 때에는 볼 수 없었던 임시 계류장이 설치되었으며, 심사군도 11개에서 12개로 늘어났다.

강석형 서울유우협동조합 과장은 “농가규모가 전업화 됨에 따라 관심이 늘고 있다”며 “가을에 개최되던 행사를 봄으로 옮겨 농번기 농가준비가 소홀할 것이 염려되지만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심사는 짐보 다카유키 일본 훗카이드 홀스타인 농협 심사위원이 담당했다.

수송아지값 다시 암송아지값 '주월현상'

“수송아지값이 암송아지값보다 평균 20여만원 더 비싼것이 일반적인 시세다”라는 말이 상식이었는데 송아지값이 3백만원을 넘어서며 번식의욕이 높아져 그 동안 몇년동안 암송아지값이 지속적으로 더 높아왔다.

하지만 최근 소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농가들이 불안해 하면 번식의욕이 낮아져 암송아지와 암소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수송아지값에 다시 추월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월 12일 상주장에서 암송아지 81두가 출장해 이중 32두가 평균 222만2천원에 거래된 반면 수송아지는 119두가 출장해 이중 94두가 233만9천원에 거래되어 11만원의 가격차이를 보이며 수송아지값의 역전현상을 보였다.

아직도 암송아지값이 10여만원 가량 더 높은 우시장이 많지만 가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EU FTA 체결되면 국내 육류·낙농 피해우려

EU(유럽연합)에서 생산되는 축산물과 신선 과일류 가격이 관세철폐 때 우리나라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EU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되면 이들 품목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EU는 5월7일부터 FTA 체결을 위한 1차 본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농협경제연구소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EU 농산물의 경쟁력과 FTA 시사점'이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EU산 육류와 낙농품은 우리나라산과의 가격차가 커 관세가 철폐되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조사됐다. EU산 돼지고기(냉동삼겹살)의 수입가격(관세철폐 가정 후 2003~2005년 평균가격)은 1kg당 3,548원으로 국산(7,782원)의 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관세가 철폐되지 않은 지금도 우리나라 전체 삼겹살 소비량의 20%를 점유하고 있고, 특히 냉동삼겹살은 우리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하고 있다.

EU의 낙농품도 CAC지수가 2.76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탈지분유의 경우 수입가격이 2,673원(1kg 기준)으로 국내산의 31%에 불과하다. EU산 사과·배·포도 등 신선 과일류의 수입가격도 국내산 대비 20~50%에 불과해 한·EU FTA 체결시 과일 가공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됐다.

자동차용기 시장 불꽃경쟁 예고

일명 로봇착유기라 불리는 자동착유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업체들의 시장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국내의 자동착유기 시장은 현재 초기 단계로 동조와 바리오가 렐리와 갤럭시 제품을 수입 공급하고 있고 드라발의 경우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제품 공급 준비에 들어갔다.

자동착유기 시장에서 가장 먼저 열을 올린 쪽은 동조물산. 세계최초로 로봇착유기를 개발한 렐리 제품을 들여와 시장 선점을 위해 공격적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동조물산은 각종 전시회와 행사 때마다 부스를 설치하고 있고 여러 전문지를 통해 광고 또한 열을 올리고 있다.

세계착유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드라발의 경우는 한국시장성을 확인하고 국내에 지사를 설립한 보기 드문 케이스로 대부분 국내 수입판매사를 통해 제품을 공급하던 형태에서 벗어나 본사에서 시장을 파견 시장공략에 더욱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지난달 20일에는 드라발 아시아지역 사장까지 참여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렐리에 뒤처져 있던 국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고 5월 10일에는 국제 낙농세미나까지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한국시장 공략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갤럭시의 경우 축산분야에 각종 IT기술을 접목시켜나가는 기업으로 주목을 끌고 있는 바리오를 통해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자동착유기 운영 프로그램의 한글화를 가장 먼저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제품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자동착유기의 대당 공급가격은 2억원선 만만치 않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착유기 제조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이유는 국내 낙농산업의 설비 투자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美쇠고기 재상륙

이르면 이달중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 검역을 마치고 3년5개월만에 다시 국내 시장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첫 수입물량이 시장 테스트 수준에 불과해 당장 미국산 쇠고기가 일반 소비자 의 식탁에 오르는 힘들겠지만 이미 수입계약을 마치고 선적을 기다리는 다른 물량도 있어 빠없는 쇠고기의 경우 미국산의 본격 수입과 유통이 머지 않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미국 정부와 축산업계는 현재의 빠 없는 살코기 수출에 만족하지 않고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위험 등급 판정을 근거로 갈비 등 뼈를 포함한 쇠 고기의 전면 개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양국의 쇠고기 관련 통상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농림부와 검역원 등 검역당국은 이번 수입분도 작년 1월 양국이 합의한 30개월 미만, 빠 없는 살코기만이라는 위생조건에 맞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수입물량 전 부에 대해 X-레이 이물질 검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검역원 관계자는 "수입업체가 인천지원 영종도 축산물 검역창고로 물건을 가져 오면 1~2일내 검역이 시작될 것"이라며 "X레이 이물질검사, 해동 및 절단 검사, 정밀 검사 등 종류가 많아 전체 검역에 정확히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예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밀검사의 경우 결과를 18일내 통보하면 되지만, 작년에 이어 미 국산 쇠고기 수입이 처음이 아닌 만큼 검사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㉞

(자료출처 : 축산신문, 농수축산신문, 라이브뉴스, 매일경제, 축산경제신문)